

변화·혁신·현장경영... 100년 은행 기반 다진다

광주은행

광주·전남 점유율 3년내 40%까지 확대
 금융지원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 울타리
 핀테크 혁신 이끄는 디지털뱅킹 선두주자
 각종 장학사업에 문화·체육 진흥도 앞장



광주은행 전경

지난 1968년 11월 이래로 반세기 역사를 지나며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 자리매김한 광주은행은 100년 은행을 향한 또 다른 출발점에 서 있다.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은행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송중옥 은행장을 비롯한 1600여 임직원들은 고객중심 경영과 현장 경영을 필두로 진정성 있는 영업 실천, 고객 및 지역민과 상생발전,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다.

◇지역 대표은행으로의 역할=광주은행은 수도권을 상대로 신시장 개척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광주은행의 모태이자 주력 영업지역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그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고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영업 기반 모태인 광주·전남지역의 점유율을 3년 내 40%까지 확대해 확고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지자체 공공금고 신규 및 재계약을 통해 지역 내 관수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고,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신규 거래처 발굴 및 거래 강화와 고객별 맞춤상품, 지역별 특화 공익상품 등을 판매해 지역밀착 Relationship Banking(관계금융)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금융권에서 발 빠른 핀테크 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모든 은행 업무를 디지털화해 고객 편의를 우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쉽고 편하게 금융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상품 개발에 힘써 나감은 물론 VIP고객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안팎으로 고객에게 매력적 어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은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은 변할 수 없는 광주은행의 소명임을 강조하고 있다.

송중옥 은행장은 "지금의 광주은행이 존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지역민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성원"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우산을 뻗지 않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고객중심경영과 현장중심경영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송 행장은 올해 신년 첫 행보로 광주지역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를 시작으로 목포, 여수 지역도 잇따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을 과약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과의 금융지원 협약을 통해 특별출연금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디지털뱅크 혁신= 갈수록 산업간 경계는 모호해지고, 쏟아지는 신개념 뱅크 서비스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이로 인해 경쟁해야 할 시장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것에 대비해 광주은행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다.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전 영업점 창구에서 PPR(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 시스템을 시행했다. PPR 시행으로 인해 각종 신청서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하면서 기존에 인적사항과 서명을 여러번 작성해야 했던 고객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종이 문서로 일일이 출력하면서 생기는 은행직원들의 불편과 업무정리 소요시간도 줄였다.

또한 스마트뱅킹 이용시 기존 공인인증서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숫자 6자리 비밀번호 설정만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간편비밀번호인증', 자신만의 패턴을 그려 로그인하는 '패턴인증', 보안카드나 OTP 비밀번호 입력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도 송금하며 더불어 상대방의 계좌번호 없이도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용해 송금을 가능케 하는 '간편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플(APP) 설치 없이 포털사이트에서 '광주는



송중옥 광주은행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광주상생카드'를 직접 선보이고 있다.

행'을 검색해 접속하기만해도 쉽고 빠르게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뱅크'를 선보였다.

이처럼 광주은행은 앞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디지털화해 고객이 쉽고 편하게 금융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우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객이 어디에 있던 그 공간에서 광주은행을 바로 만나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지털 뱅크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핀테크 혁신을 이끄는 광주은행의 최종 목표이다.

◇지역사회 공헌=송중옥 은행장의 경영철학 첫 번째는 고객중심경영, 두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다. 지역민과 고객이 보내주시는 성원 덕분에 지금의 광주은행의 역사가 가능했다는 감사함으로 광주은행은 매순간 지역의 사회공헌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과 금융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부터 소년소녀·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활동에도 힘쓰고 있으며, 특히 1600여 임직원들은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공헌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은 지역밀착경영으로도 이어진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중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스타트업 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또한 광주시, 전남도 등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상생발전을 이루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말에는 '제3회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 개막식과 함께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광주화루는 광주가 한국화의 전통과 맥을 지키는 '보루'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광주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로 전국의 한국화 작가를 대상으로 한국화 공모전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외에도 광주FC축구단 후원과 남자 배드민턴 선수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체육 진흥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올해 7월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세계 대회 개최가 지역에 미칠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며 광주은행은 공식후원은행으로서 홍보에 적극 앞장설 계획을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후원은행으로서 입장권 구매 등 대회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광주FC를 후원하는 등 지역체육 진흥에도 앞장서고 있다.



창사67주년 광주일보

천사대교 야경

신안군 직원 이동	신안군의원 이동	신안군의원 이동	농어촌공사 직원 이동	무안신안지사 직원 이동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직원 이동	서부사무소 직원 이동	농협중앙회 직원 이동	지부장설존홍외	목포농업협동조합	조합정박정수	남신안농업협동조합	조합정김병남	도초농업협동조합	조합정김경철	비금농업협동조합	조합정최승영	북신안농업협동조합	조합정양영모	신안농업협동조합	조합정이동치	임자농업협동조합	조합정변재남	압해농업협동조합	조합정천성태	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정고평훈	신안군산림조합	김길외 직원 이동	신안군산림조합	박일외 직원 이동	(유)해남박환경	(유)대표이사 박순임	(유)대표이사 고환석	보경전기(주)	대표이사 이상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